



기획시리즈



임경빈
농학박사

조경수목산책 (Ⅱ XⅧ)

— 산수유 나무 —

아름다운 산수유

산수유나무는 지금은 양묘가 되어 심어지고 있으나 전에만 하

더라도 흔한 나무는 못 되었다.

중국에서 약용수종으로 도입된 것이라 하나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수유의

열매는 새들이 먹을 터이고 새의 소화기관을 지나 배설물에 혼입 되어 생각지도 못한 곳에 전파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본



▲꽃을 피운 산수유. 촬영사 1988. 4. 15



▲ 어린 산수유 꽃.
익산 1989. 3. 6



◀ 만개상태의 산수유
꽃. 전주, 임업시험장
1992. 4. 17

다.

필자가 자라난 고향마을에는 산수유는 없었고 광복 후에 경기도 양평 부근에서 이 나무를 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전에 보았을지도 모르나 기억에 없다. 이 나무에서 받은 첫째 인상은 그 독특한 붉은 열매에 있었다.

긴 타원형의 열매는 알맞은 곡선으로 윤곽을 만들고 그 모습은 예술적인 맛을 지니고 있었다. 열매 곡선에 불규칙성이 없고 어느 열매나 한결같은 곡율(曲率)로 되어 있다는 것은 산수유열매의 아

름다움이다.

열매의 표면은 매끈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감촉을 즐기라고 유혹이나 하듯이 한다. 열매 안이 힘으로 꺾치고 탄력으로 충만해서 생리(生理)의 늠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표현이다. 손을대면 터질 것 같은 팽만은 오히려 힘의 과잉에서 오는 것일지 모른다. 몇 일 후이면 내리는 서리에 그 탄력은 허물어질 것이지만 맑은 가을 하늘 아래에서 그때를 기다리는 산수유 열매는 선명하고 광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잎을 떨어뜨

리고 수천 수만 개의 열매를 달아 햇별을 반사시키는 집단 행동은 황홀하기만 하다. 산수유는 열매의 아름다움으로 그 생애의 계절적 극점에 이르게 된다.

한 포기의 산수유라도 뜰에 심어 그 열매로 뜰을 채우는 미의 설계는 산수유를 아는 이가 할 노릇이다.

산수유는 봄을 알리는 선구자로서 꽃을 단다. 온 나무가 노랑의 꽃송이로 덮인다는 것은 이 지구가 설계될 때의 목적의식에 이미 숨어 있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노랑으로 봄이 물들이게 된다는 것은 그 안에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산수유보다도 더 빨리 봄소식을 알리는 풍년화가 있다. 풍년화도 노랑꽃을 단다. 또 개나리가 있다. 화사한 노랑꽃을 자랑한다. 그런데 개나리, 풍년화, 산수유는 꽃이 노랑인 동시에 모두들 꽃조각이 4장으로 되어 있다.

분류학상 소속되는 과가 서로 다른데 꽃색깔과 4라는 숫자로 통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무언가 뜻을 모아 공동행동으로 나선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꽃조각 4장이 노랑으로 물들고 봄을 자랑하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다. 봄이 춘하 추동 4계절의 으뜸이란 말인가. 아니면 동서 남북으로 뜻하는 온세상의 색깔의 첨병(尖兵)이란 말인가. 그것도 혼자서는 부족해서 그룹의 힘으로 색채를 과시하는 것은 색깔의 민주적인 힘이란



말인가.

어느 해 봄날 푸른 봄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가지의 마디마디가 꽃뭉치로 작렬해서 눈부시게 해 준 그때를 회상해 본다.

봄나절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해주는 꽃, 가령 살구꽃같은 것이 있는가 하면 역으로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물고 가는 꽃, 가령 산수유 꽃이 있다. 산수유의 꽃은 하나하나로서는 별 뜻을 나타내지 못한다. 20~30개의 꽃이 모여서 한 우리 안의 가족이 되어 하나로 통제된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것은 조직사회 질서의 준수로 볼 수밖에 없다. 식물학적으로 말하는 총포 안에 꽃들이 밀집해 있다는 것은 질약을 추구하는 체제라고도 볼 수 있다. 인간은 이러한 효율과 질서를 배울 필요가 있다. 나무와 숲이 인간과 인간 사회의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창조의 주체가 설계해 준 오묘한 설계를 인간들은 관찰해서 배워



(사진 위)시들어 가고 있는 산수유 꽃. 수원임목육종연구소 1997. 4. 30
(사진 아래)산수유의 어린가지 색깔. 전주 임업 시험장 1992. 4. 10

야 한다는 데 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캐내어야 하는 것이지 하늘에 뜬 구름처럼 방황하고 있어서 잡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우아의 미를 산수유가 간직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수피는 이상할 만치 어울리지 않게 조잡하다.

껍질이 거칠게 벗겨지고 그것

이 이내 땅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오래 줄기와 가지에 붙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접근을 멀리하고자 하는 방편처럼 생각된다.

아름다운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 뜻과 등식관계를 모색해 본다면 그것은 지나친 인간본위의 사고라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왜 산수유의 줄기와 껍질이 못생긴 것일까. 하는 의문에 대답할 길이 없다.

산수유잎 뒤 맥겨드랑이에는 털이 나 있고 이 털이 피부에 닿으면 소양증을 유발한다. 그래서 우리는 산수유나무에 가까이를 접근하는 것을 꺼려한다. 이것은 산수유나무가 자신을 보호하려는 데서 취하는 몸가짐이 아닌가도 생각해 본다.

꽃으로 열매로 잔뜩 우리를 유혹하고 유인해 놓고 그와같은 체제를 가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이지만 그들로서는 해 볼만한 몸가짐이다. 처음부터 그들이 인간만을 위해서 생겨났다고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마주나는 잎은 짙은 녹색을 띠고 앞에는 거치가 없다. 측맥이 뚜렷하게 발달해 있다. 식물학서적에 이 나무를 교목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옛 책 본초강목이나 삼재도회(三才圖會)에는 관목류 안에 넣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큰 산수유나무는 드물다. 옛 책에 왜 이것을 관목으로 취급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산수유 나



◀산수유 줄기의 수피. 원광대학교
1989. 3. 12

▼열매를 단 산수유. 금산 칠백의총
1989. 12. 11



무의 거목도 있다.

산수유의 옛 이야기

산수유나무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원산지로 알려지고 있고 일본의 산수유는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수유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미 신라시대부터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삼국유사 48대 경문대왕(景文大王) 조(條)에 다음과 같은 사연이 기록되어 있다. 47대 현안왕(憲安王)이 잔치를 베풀

풀때 국선(國仙)이었던 어린청년 낭(郎)을 불러 무슨 좋은 일을 본 적이 있는가 하고 물었을 때 낭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다.

남의 뒷자리에 있으면서 겸손한 태도를 지녀 아랫사람과 함께 한 사람의 경우가 첫째이고, 두 번째는 부유하면서도 겸손하게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있었고, 세 번째는 강력한 세력가이면서 그 위엄을 잘 갈무리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했다. 이 대답에 왕은 매우 흡족했

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낭은 현안왕의 딸을 얻게 되었으며 왕위를 계승하여 48세의 경문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그런데 경문왕의 귀가 점점 길어져서 나귀의 귀처럼 되어갔다. 이때 한 아랫사람이 그 사연을 숨겨 참을 수가 없어서 도림사(道林寺)의 대나무 밭에 들어가 대나무를 향해서 외치기를 “우리 임금의 귀는 나귀의 귀”라고 했다. 그의 입은 무척 해똥던 것이다. 그 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는 「우리 임금의 귀는 나귀의 귀와 같다」고 하였다. 임금이 이것을 알고 대나무를 미워했으며 끝내는 끊어 버리고 말았다. 그 뒤 임금은 그 자리에 산수유를 심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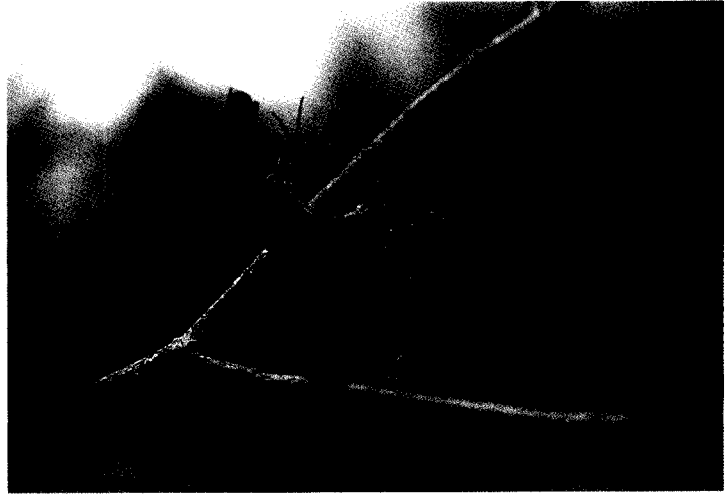
내벌죽이식산수유 (乃伐竹而植山茱萸)

그래서 신라시대부터 이미 산수유라는 나무이름은 있었고 임금이 이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며 산수유에 역사적인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고 싶은 것이다. 왜 당시 산수유 나무를 심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대답은 찾기 어렵다. 당시 신라의 서울이었던 경주지방에 이 나무가 흔하였다고도 생각되고 한편으로는 임금이 무언가 이 나무에 매력을 가졌던 것으로도 생각된다.

대나무는 절개가 곧아 사실을 사실대로 굽히지 않고 말하는 나

무로 본다면 산수유는 생각에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미화해 주는 너그러움도 있는 나무로 생각된다. 나귀의 귀같다는 말을 임금이 듣기 싫은 것이었다면 구태여 그것을 꼬집어내어 바람에 말을 날려 보낼 필요가 없었다. 되도록 상대방의 좋은 점만을 보고 산다는 것은 마음 편한 일이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본 산수유 나무의 성품을 되새김질 할 여유도 가져 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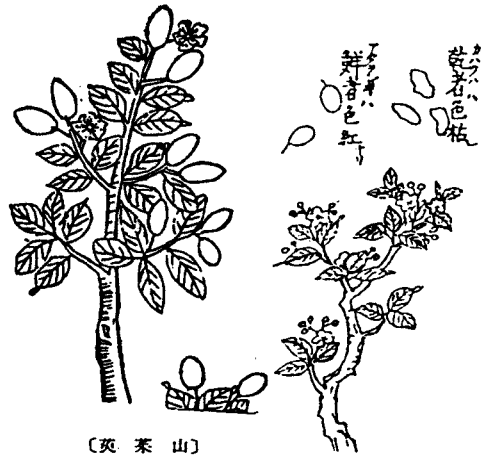
그러나 임금이 더 훌륭하였다 라면 그 대나무를 끊지않고 그대로 두었을 것이다. 왜 그래야 하면 소문이란 것은 그 속성이 건드릴수록 증폭되어 어쩔수 없는 상황에 까지도 다달을 수 있기 때문



▲산수유 열매의 미학. 임목육종연구소 1995. 11.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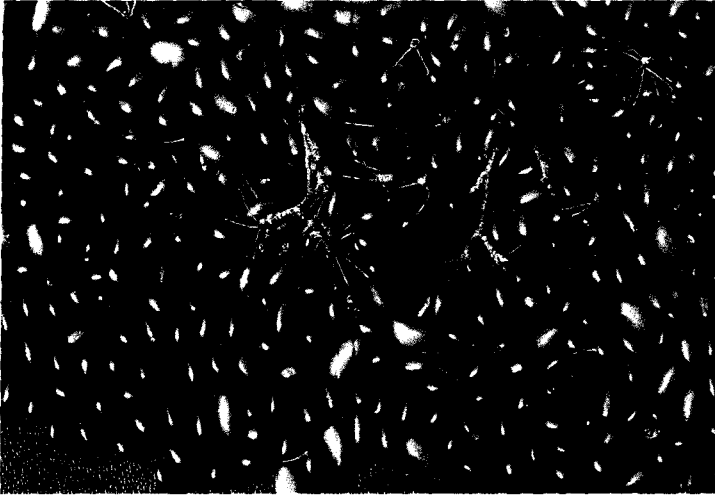
이다. 산수유나무를 심어서 소문이 끝날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록으로까지 남게 되고 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는가. 그 소문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 아닌가 소문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개가 잡배들인데 그것을 상대해서 산수유나무로 막으려고 한 임금이 잘못이었다고 이에 가담한 대나무의 행동에도 찬성할 수 없다.



〔英 茶 山〕

▲산수유나무 그림, 필자그림(좌), 본초강목(중), 화한삼재도회(우)



▲산수유 열매의 탄력. 경기도 양주 1975. 10. 25

본초강목의 산수유

산수유는 약용식물로 중요시되었고 그 내용이 본초강목에 잘 소개되어 있다.

내용의 일부를 보면 먼저 산수유는 촉산조(蜀酸棗), 육조(肉棗), 계족(雞足), 서시(鼠矢)라고도 말하고 육조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의 모습에 연유하는 것이라 했다. 산수유의 열매가 대추와 열핏 닮아 있어서 대추조(棗)자가 들어간 것이라 했다. 그런데 본초강목에 설명된 산수유의 정체는 애매한 것이 있다고 한다. 한 외국학자는 다음과 같은 서술을 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현재 중국, 일본에서 산수유(山茱萸)라 하고 있는 생약은 그 학명이 코르누스 오피키날리스(*Cornus officinalis*)로 된 나무의 열매를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 그런데 본초강목에 설명된 산수유

가 무엇인지 뚜렷하지는 못하다. 일본에는 1722년에 조선으로부터 건너왔다는 기록이 있고 그 뒤 각지에 심어졌으며 꽃나무로서의 가치가 주된 것이었다. 그 열매를 가을에 약용으로 하는 산수유로서 채집되고 있다.

그런데 중국과 우리나라에 나는 산수유가 한문자 山茱萸로 된 시대는 어느때부터였는지 미상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본인 학자의 서술을 읽으면 우리가 더 고찰해 보아야 할 여지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중국에서 간행된 문헌에 따르면 산수유라는 명칭은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수종에 틀림이 없다. 일본의 마끼노박사는 앞에 든 바 있는 학명에 대해서 산수유의 일본발음인「산수유」를 그대로 쓰고 별명으로서 춘황금화(春黃金花) 또는 추산호(秋珊瑚)를 들고 있다. 봄꽃과 가을 열매의 아름다

운 색깔을 바탕으로한 명칭이라 하겠다. 그리고 산수유라고 한자명의 적용에는 의문이 있는 것으로 했다. 일본에서 낸 「국역본초강목(國譯本草綱目)」에는 1972년의 문헌이 인용되어 있으므로 근간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책에는 본초강목의 산수유에 대한 정확한 학명은 미상이라 했고 또 정확한 일본명 과명(科名)도 미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초강목의 그림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산수유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안다.

이 곳에 그 그림을 보인다. 본초강목에 설명되고 있는 산수유의 약효는 다방면에 이르고 있다. 약효의 결론은 건강을 돕는다는 데 있고 눈을 맑게 하고 노인들의 오줌의 절도를 조절하고 강정(強精)효과가 있다고 했다. 산수유의 과육은 시장에서 구할 수 있으므로 복용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열매 안에 있는 핵(核, 씨)은 오히려 건강에 나쁘다하니 먹어서는 안된다.

제민요술(齊民要術)의 수유

제민요술에 나오는 수유는 이곳에 설명하는 산수유와는 다른 것이다.

제민요술의 수유는 식수유(食茱萸)를 말하는 것이고 식용이 되나 산수유는 식용이 되지 않는다. 수유에 대한 제민요술의 숲의 설



▲산수유에 달은 풍년화의 꽃. 임업시험장 1990. 봄

명에 흥미있는 대목이 있어서 이곳에 몇 가지만 소개해 본다.

첫째는 우물가에 수유나무를 심어두면 그 잎이 우물 안으로 떨어지고 그때 그 물을 마시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다음으로는 집 동쪽편에 사시나무와 수유나무를 3그루 심어 두면 건강에 좋고 장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하나는 수유의 열매를 집안에 걸어두면 잡귀신이 이것을 무서워해서 들어오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수유는 산수유와는 다르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다.

사동종백양수유삼근 증년익수
제환해야

舍東種白楊茱萸三根 增年益壽
除患害也

현수유자어옥내 귀외불입야
懸茱萸子於屋內 鬼畏不入也

수유나무의 시

우리에게는 산수유의 봄 꽃이 라던가 가을·겨울의 붉은 열매가 시와, 그림으로도 될 법한데 중국의 시에는 수유를 대상으로 한 것이 많다. 그것은 수유가 나쁜 귀신을 물리치고 행운을 가져온다는 상징이 있어 민속행사에 이것이 뛰어들어 수유나무 문화를 다듬어낸 데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명칭의 유사성도 있어서 다음에 수유나무를 소재로 한 중국의 시 한 수를 든다. 이것 이외에도 왕유(王維)의 중양절(重陽節 9월 9일)노래에도 수유가 등장한다.

다음은 장악(張愕)의 시인데 시제는 구일연(九日宴)이다.

秋葉風吹黃颯颯
추엽풍취황삽삽
晴雲日照白鱗鱗
청운일조백린린

歸來得問茱萸女
귀래득문수유녀
今日登高醉幾人
금일登高취기인

중양절에는 민속놀이로서 산에 올라 음식과 술을 즐기고 머리에 수유가지를 꽂는 습속이 있다. 윗시를 풀이해 본다.

가을바람 불어
노랗게 물든 나뭇잎이
나부끼고
맑은 하늘 흰구름
비늘처럼 수 놓았다.
수유가지 머리에 꽂고
돌아오는 여인에게 묻노니
오늘 등고에 술 취한 이 많던
가.

정말 멋진 시이다. 고요한 분위기 안에서 인생을 함께 즐기는 인간들의 무리가 보이는 것 같다. 남자, 여자 산 위에서 몇 잔의 술 힘으로 더 넓은 자연과 우주를 내다보고 수유가지로 잡스러운 것을 추방하고 돌아오는 삼삼오오의 무리가 있다.

시인이 하필이면 여인에게 사연을 물어보는 데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맛을 더해주는 멋이 있다. 생전 모르는 남자의 이러한 물음에 그 여인은 그 놀이를 서슴치 않고 이야기 해주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순수하고 즐거운 인간의 삶은 값진 것이다.